

中共社會의 脫階層化 :

이데올로기의 平等主義志向과 그 限界*

洪 斗 承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目 次>

- | | |
|-------------|----------------|
| I. 問題의 提起 | III. 再階層化의 움직임 |
| II. 脫階層化 노력 | IV. 評價 및 論議 |

I. 問題의 提起

社會的 不平等의 起源을 生産手段의 所有關係에서 찾고자 했던 마르크스主義者들에게, 私所有財產制의 撤廢는 平等으로 향한 지름길로 생각되었을지 모를 일이다.⁽¹⁾ 그러나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導入한 國家에서도 社會的 不平等과 「構造化된 不平等」(structured inequality)⁽²⁾으로서의 社會階層 現象은 消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資本主義體制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基準에 의해 階層化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事實은 學者들간에 대체적으로 認定되고 있다. 따라서 問題의 軸점은 體制에 따른 不平等의 存在有無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不平等의 程度에 맞추어지게 되며, 그 社會成員들이 이러한 不平等의 程度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平等을 내건 共產主義體制를 채택한 中共社會가 과연 어느 程度 平等을 이루었으며, 그 限界성과 問題點이 무엇이었던가가 本 小考의 主된 關心이다. 특히 1966年 文化革命이 일어난 以來 1976年 四人幫이 沒落하게 될 때까지

* 特別히 註가 붙어 있지 않은 內容은 William L. Parish와 Martin K. Whyte가 1978년에 香港에서 中共으로부터 1972년에서 1978년 사이에 넘어온 피난민 133명을 對象으로 인터뷰한 資料에 依存하고 있다. 피면접자中 一部는 査證을 받아 合法的으로 出國한 사람들이며, 젊은 男性들이 많고 知識水準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 資料의 一部를 提供해 준 Parish教授에게 感謝한다.

(1) 不平等의 起源을 說明하는 몇가지 觀點에 대해서는 Ralf Dahrendorf, "On the Origin of Inequality among Men," in *Essays in the Theory of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8), pp. 151-178 參照.

(2) Celia S. Heller, "General Introduction" in *Structured Social Inequality: A Reader in Comparative Social Stratification* (London: Macmillan, 1969), pp. 1-6.

의 약 10年間은 비교적 純粹한 形態의 平等主義의 實驗室的 狀況이 中共社會에서 벌어졌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狀況은 中共社會에 대한 客觀的의이고 公正한 資料가 貧困함에도 불구하고, 社會階層을 研究하는 社會學者들의 關心을 많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平等과 不平等에 대한 論議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中共社會에 觸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것도 意味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平等」(equality)과 「公平」(equity)의 概念에 대한 說明을 우선 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들 두 概念은 때에 따라서 混用되기도 하지만 本質的으로 相異한 含意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社會的으로 價値있게 評價되는 資源이 平等하게 分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基本的으로 “事實”(fact)의 次元에서의 이야기이고 公平하게 分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個個人的 主觀的 評價에 따른 “倫理的 判斷”(ethical judgment)에 根據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³⁾ 따라서 平等的 分配가 公平的 分配의 바탕을 이룰 수는 있어도 平等分配가 곧 公平分配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George C. Homans 는 「分配的 正義」(distributive justice)의 側面에서 社會的 平等과 公平의 概念을 理解하고 있다. 分配的 正義란 投入과 產出간의 均衡을 뜻한다. 즉 한 個人이 그가 投入한 것에 대한 產出이 他人과 比較하여 그가 期待했던 것보다 적을 때에 「分配的 不公平」(distributive injustice)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때의 投入과 產出은 반드시 經濟的인 側面에 局限되어 쓰이는 것은 아니며, 보다 抱括的인 社會的 資源에도 適用된다.⁽⁴⁾ 投入이란 年齡, 教育程度등과 같은 物理的·社會的 條件을 뜻하게 되고, 產出이란 이러한 條件으로 부터 導出되어지는 社會的·物質的 報償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個人的 學力이나 業積에 關係없이 同等하게 分配된다고 할 것 같으면, 社會的 平等은 維持될 수 있겠지만 社會的 不公平이 동시에 存在하게 되기 때문에 平等과 公平은 많은 경우에 있어 葛藤關係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다.

中共社會에서 文革以來로 展開되어 왔던 所得, 教育機會 및 기타 社會的 機會에 있어서의 平等化政策은 70年代 中葉 이후 再評價되고, 一部 修正 또는

(3) Martin Bronfenbrenner, "Equality and Equit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09 (September, 1973), pp.9-23.

(4) George C. Homans,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4) revised ed.

포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脫平等化的 過程은 특히 中共社會가 推進하고 있는 近代化努力과 並行하여 分配에 있어 平等보다는 公平의 原則을 追求하려는 움직임의 一端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

現在에도 계속적으로 體制上的 變化를 經驗하고 있는 中共社會에 대하여 本 小考는 어떠한 성급한 結論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60年代 中葉부터 시작된 急進的이고 이데올로기의인 脫階層化 노력과 그 以後의 實用主義的인 再階層化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계층理論의 側面에서 中共의 이데올로기의 平等主義 志向과 그 限界性이 갖는 意味를 評價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脫階層化의 노력

舊體制下에서의 階層構造를 全面 否定하는 脫階層化의 노력은 소련 및 東歐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共產政權이 樹立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9年 以前의 모든 社會의 階層的 秩序는 이들 秩序가 바탕을 두었던 經濟的·社會的 資源의 集産化를 통하여 새로운 社會秩序에 依해 代替되었던 것이다. 특히 農業中心의 中國社會에서 不平等 및 階層化의 根源인 土地의 所有關係는 一連의 土地改革運動에 의해 전면 拒否되고, 同時에 都市에서는 資本家들의 生産手段이었던 企業과 工場이 국가에 의해 沒收되는 일대 激變을 겪었던 것이다. 1949年 以前의 社會的·職業的 地位에 따라 階級的 名칭이 個人에게 賦與됨으로써, 資本家, 地主 및 舊國民黨 要人들은 소위 “出身成分이 나쁜” 階級으로 烙印이 찍히어 경멸의 對象이 되었으며 公式的으로는 人民의 敵으로 規定되어 엄격한 統制를 받게 되었다. 反面에 都市勞動者 및 貧農은 “出身成分이 좋은” 層으로 評價되어 社會的으로 우대를 받게끔 되었다. 그러나 出身階級에 따른 社會的 活動의 制限은 50년대 中葉以後로 比較的 緩和되었으며 적어도 文革勃發時까지는 대체로 큰 變化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⁶⁾

(5) David M. Lampton, “New ‘Revolution’ in China’s Social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28 (September-December, 1979), p. 16.

(6) 1949年 이전에 開業을 하고 있었던 醫師등 一部 專門職 從事者들에게 더 이상의 開業은 許容되지 않았으나 이들 大部分은 前과 비슷한 水準의 物質的 報償을 받았다. 이들 專門職 從事者와 國民黨政府下의 下級官僚들은 60年代初葉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中立的인 階級으로 看做되었었지만 文革이 일어난 以後에는 成分이 “나쁜” 階級으로 取扱당하기 시작하였다.

經濟的 報償體系에 있어서는 1956년에 소련式의 賃金制度가 導入되어 行政官僚들에게는 20個 以上の 봉급等級이 매겨지고, 技術者들에게는 17個 等級, 그리고 一般勞動者들에게는 8個 等級이 마련되어 이들 等級에 따라 報償이 이루어졌으며, 그 以外에 作業能率에 따라 褒賞과 보너스가 支給되었다. 50年代末에 大躍進運動이 展開되면서 產業組織에서 能率級이 抑制되고, 一部 政府 高位層의 俸給이 削減되는 등 變化를 겪었지만, 이러한 體制는 文革時까지 事實上 維持되어 있었다. 4

文化革命이 시작되면서 모든 能率給과 보너스·褒賞制 등이 없어지고, 一部管理層은 一時的으로 降等되거나 減俸處分을 받았으며 勞動者出身 등이 主要地位에 크게 進出하였다. 敎師, 技術者 및 行政官僚의 權威는 格下되었고, 地位에 따른 賃金隔差도 대폭 줄어들었으며 物質的인 報償보다는 精神的인 報償으로써 作業의 能率을 기하려고 하게 되었다.

文化革命으로 지금까지 弱화되어 왔던 出身階級의 重要性이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써 出身成分이 “나쁘면서” 現職에 從事하고 있었던 일부 官吏와 敎師들은 解雇되어 農村으로 쫓겨나가게 되었으며, 그들은 때로 한 家族의 破壞마저 甘受하여야만 하였었다. 文革以後의 政策은 舊엘리트 階級과 그 子孫들이 中共社會에 融和되어 生活할 수 있는 根據를 剝奪하였다고 보여진다. (7)

이와 同時에 새로운 政治指導者層이 누리왔던 特權과 그들의 生活에 대해서도 強硬한 攻撃이 가해졌다. 知識人, 事務職從事者, 共產黨黨務者 등 精神勞動者들에게는 定期的으로 農村 등으로 내려가 肉體勞動을 하도록 政策的인 措置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하여 地位에 따른 社會的 不平等을 감소시키려 노력하였던 것이다.

敎育制度에 있어서도, 中等敎育까지의 기간을 12년에서 9年 내지 10年으로 줄였고 中等學校卒業者들이 卒業後 바로 上級學校로 進學하는 것을 전면 抑制하였다. 즉 勞動을 하거나 軍隊에 가거나 아니면 下放되어 農業勞動에 從事하도록 되었었던 것이다. 上級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사람들은 實務에서의 經驗을 가진 勞動者와 農民들 중에서 選拔되고, 또 그들은 敎育履修後에는 다시 生産에 從事토록 된 것이다. 물론 下放이 文革以後에 처음으로 施

(7) Martin K. Whyte, "Inequality and Stratification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64 (December, 1975), p. 705.

行된 것은 아니지만, 그 以前에는 적어도 졸업後 바로 進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으나 그 以後에는 完全히 차단된 것이다. 그러므로 學校에서의 成績보다는 生産單位에서의 추천과 承認이 出身階級과 함께 入試에 있어서 決定的인 역할을 하였었다.

教育機會의 平等化를 통하여 社會的 平等을 기하려는 노력이 文革 以前에는 教育을 받을 수 있는 機會가 事實上 一部層에 局限되게 됨으로써 期待했던 것만큼의 效果를 거둘 수는 없었다. 새로운 高位行政官僚의 子弟들이 教育의 機會를 더 많이 갖게 되는 反面, 勞動者·農民의 子弟들은 充分한 教育의 機會를 갖지 못하고 學業成績 等에서도 不振함을 보임으로써, 下位職種에 보다 많이 從事하게 되었으며, 下放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學業成績이 不振한 勞動者·農民의 子弟들이 우선적으로 보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高等教育을 받을 수 있는 機會를 決定하는 데 있어, 學校에서의 成績과 政治的 寄與도와 出身階級間에서는 葛藤이 存在하였던 것이다.⁽⁸⁾

이러한 理由에서, 教育機會에 있어 事實上的 不平等이 文革時 批判의 주요 對象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結果로서 農民의 子弟들은 그들에게 賦與된 割當量에 따라 大學에 入學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文革以前에는 子女의 教育和 地位決定에 있어 家族의 影響을 排除시키기 힘들었었지만, 그 以後에는 父母의 影響이 激減되었고, 地位體系의 再生産의 可能性은 極小化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Ⅲ. 再階層化의 움직임

文革으로 惹起되었던 急進的인 平等化의 움직임은 四人幫의 沒落以後, 實用主義的 改革主義가 臺頭됨으로써 制動이 걸리게 되었다. 農村에는 1979년 以後 人民公司에 責任生産制가 導入되었는데, 이는 一定量의 生産目標가 設定된 후 追加의 노력에 依해 이루어진 超過生産量에 대해서는 追加의 報償을 주는 制度인 것이다. 責任의 形態는 各 地域의 特性和 發展程度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共通點은 生産隊의 責任下에 家口單位로 또는 個人單位로 生産割當量이 約定에 의해 定해지고 報償은 所出量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8) William L. Parish, "Egalitarianism in Chinese Society," *Problems of Communism* 30 (January-February, 1981), p. 47.

는 것이다. 즉 이미 約束된 部分은 統一된 分配를 위해 生産隊에 納付되고, 超過量에 對해서는 個人 또는 家口單位로 保有할 수 있도록 된 것이었다. 이는 生産의 手段은 集團이 所有하고 있고 生産隊가 基本的인 會計單位가 되고는 있지만, “業績에 따른 分配”의 原則이 實行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⁹⁾

이와 같은 分配方法은 過去 資本主義的 性向을 띠는 것으로 看做되어 批判받았던 것으로서 責任生産制가 導入된 以後, 生産에 對한 農民들의 意欲은 全般的으로 크게 增進되었다. 예를 들어, 河南省의 1980年度 棉花生産量은 1979年度の 倍를 記錄하고 있고, 遼寧省에서는 1980年 個人當 所得이 1979年の 倍가 되는 300元을 나타내고 있다.⁽¹⁰⁾

또한 安徽省의 어느 한 縣의 경우는 1979年の 穀物生産量이 前年度보다 49% 增加하였고, 記錄의이었던 1977年보다도 20%나 增加하게 됨으로써, 과거 極貧地域으로 評價받던 곳이 1979년에는 良好地域으로 바뀌었다고 報道되고 있다. 이는 그 地域의 農民들이 自身들의 勞動의 結果가 生活條件의 改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事實을 알고 生産에 熱意를 높였기 때문이었다고 指摘되고 있다.⁽¹¹⁾

더우거나 最近의 報道는 人民公司政策의 大幅的인 變容을 알리고 있다. 大躍進以來로 強調되어 온 所有의 公有制와 耕作의 公營制에 대한 根本的인 修正으로써 農繁期 以外에는 集團勞動에서 벗어나 個人的 家庭副業에 專念할 수 있도록 人民公司內的 自留地의 比率을 5~7%에서 15%까지로 擴大한다는 것이며, 이는 結局 農業의 個人經營體制를 크게 늘린다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¹²⁾ 이들 5%의 自留地에서 이미 農業總生産量의 20%가 生産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¹³⁾ 79年度の 農民의 個人當 年平均所得인 160元가운데 58元이 家計副業을 包含한 非集團勞動에서 얻어졌다고 하는 事實은 個人經營體制의 效率性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¹⁴⁾

都市地域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몇년간 事務職을 包含하여 勞動者들에게 賃金引上 以外에 보너스를 支給하기 시작하였다. 中共統計局資料를 보면 國

(9) *Beijing Review*, 27 April 1981, pp. 6-8.

(10) *Beijing Review*, 16 March 1981.

(11) *Beijing Review*, 15 September 1980.

(12) 讀賣新聞, 1981年 4月 8日字 參照.

(13) 80年度 中國百科年鑑의 記錄, 中央日報, 1981年 2月 13日字 參照.

(14) *Beijing Review*, 19 January 1981, pp. 5-6.

營企業의 경우 個人當 平均所得은 1977年の 602元에서 1980년에는 781元으로 年平均 60元이 增加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勞動者家族의 個人當 平均所得은 395元으로 그간의 物價上昇率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올랐다.⁽¹⁵⁾ 都市地域의 生産工場에서는 70年代中葉 以來로 政府主導의 中央集權的 經營體制가 緩和되어 責任과 權限의 相當部分이 個別生産單位로 轉移되었음을 볼 수 있다. 78年 12月の 第11期 中國共產黨 中央委 第3次 全體會議에서는 中共에 있어 企業經營의 심각한 缺點은 權威의 지나친 中央集中化였다고 指摘되어, 企業自體가 企業의 損益에 對한 部分뿐만이 아니라 充員과 人事에 있어서도 모든 責任을 지도를 決定하였었다.

國營商店에서도 販賣計劃이나 物量供給 등이 上部機關에 의해 統制되지 않음으로써 業務改善 등에 意慾이 高潮되고 利潤追求로의 動機化는 費用과 浪費를 줄이도록 誘導되어 市場의 需要에 副應할 수 있도록 拍車를 加하게 된 것이다. 80年度 中葉에는 大都市 國營企業中 16%가 獨立採算制에 바탕을 둔 自立經營制를 갖추게 되었다.⁽¹⁶⁾ 즉 過去와 같이 利益을 國家에 전부 바치는 것이 아니라, 稅金의 形態로 納付하고 남는 것은 擴大再生産을 爲하여 企業에 再投資하거나 勞動者들의 福祉向上과 보너스支給에 쓰도록 措置된 것이다. 企業의 所得과 費用에 대해 企業의 損益에 關係없이 國家가 責任을 져 있던 過去와는 다르며, 企業運營의 主導權을 企業自體가 가짐에 따라 生産量 또한 增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四川省의 경우 99個의 國營商店이 80年初에 새로운 經營體制를 導入하였는데 그 結果 88個의 商店에서 平均 18%의 販賣量增加를 보이었다.⁽¹⁷⁾

한편 幹部充員에 있어서는 文革過程에서 많은 幹部들이 能力이나 專門技術에 의해서 보다는 政治的 寄與度나 政治的 活動에 의해 選拔됨으로 해서 1978年の 경우 技術的으로 能力을 갖춘 幹部는 1/3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近代化의 큰 障礙要素가 되고 있다고 指摘되었다.⁽¹⁸⁾ 따라서 적절한 職業的 技術을 保有하지 못한 幹部들은 地位에 相應하는 知識과 能力을 가진 幹部들로 代替되었고, 選拔過程에서도 教育水準이 낮은 農民이나 勞動者出身으로부터 選拔치 않고 大學出身者나 高等技術學校卒業者로부터 充員하게

(15) *Beijing Review*, 23 February 1981.

(16) *Beijing Review*, 13 October 1980.

(17) *Beijing Review*, 10 November 1980.

(18) *Beijing Review*, 14 July 1980.

되었다. 大學入學에 있어서도 中等學校에서 바로 進學하는 學生數가 늘게 되고 選拔基準도 知的 能力을 測定하는 엄격한 試驗制度가 強調되게 되었다.

80年 8月 人民日報에 나타난 中共黨 中央委 組織局長의 이야기에서 政治的 寄與度뿐만 아니라 職業的 熟練性도 크게 考慮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새時代의 中共黨이 必要로 하는 幹部란 첫째로 社會主義路線을 절대로 追求하면서, 둘째로 專門知識과 職業的 技術에 能熟하고, 셋째로 過重한 任務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서 四人幫의 理念體系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더 以上の 就業機會가 주어져서는 안되며, 職業的 專門資格을 가진 幹部는 昇進되고 그러한 能力을 缺如한 늙은 幹部들은 退進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經濟計劃 및 社會改革은 農村地域과 都市地域에서 共히 勞動者들의 生産意慾을 高潮시키고 同時에 生産性을 크게 向上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社會變革은 新엘리트階級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所得을 包含한 社會的 資源의 分配에 있어 不平等을 增加시키는 方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一連의 움직임은 農村과 都市의 隔差를 더욱 擴大시킬 수 있는 餘地를 內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²⁰⁾

IV. 評價 및 論議

지금까지 中共社會에 對한 概略的인 考察에서 文革을 통한 脫階層化의 노력 및 急進的 平等化의 움직임은 그 限界點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文化革命의 直接的인 後遺症은 고사하고라도, 中共社會의 體制를 維持해 나가는 데 있어 이데올로기의 平等主義는 이제 實用主義의 修正主義와 折衷을 摸索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었다.

物質的인 報償의 희생위에 精神的인 報償만을 強調하게 되는 것은 生産意慾을 低下시키고 結果的으로 中共의 經濟的 發展과 近代化作業을 遲延시킨 副作用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能率給이 抑制되고 業績에 따른 昇給制度를 除去한것은 結局 物質的인 刺戟을 極少化시킨 것으로 生産目標量을 超過해

(19) *Beijing Review*, 11 August 1980; Lowell Dittmer, "China in 1980: Modernization and Its Discontents," *Asian Survey* 21 (January, 1981), p. 38.

(20) Robert F. Dernberger, "Prospects for the Chinese Economy," *Problems of Communism* 28 (September-December, 1979), p. 15 參照.

서 達成해야 할 必要性을 못 느끼게끔 하였다. 理想主義의 平等主義로의 志向은 公正한 分配 즉 業績에 따른 差等的 報償이라는 또다른 價値와 葛藤을 일으킴으로써 「分配的 正義」의 問題를 惹起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問題를 階層論에서의 古典인 論爭인 機能主義的 見解와 이에 對한 批判의 立場에서 理解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機能主義的 階層理論의 基本立場이란 階層構造의 機能의 必要性에서 찾고 있다. 機能主義者들에 의하면 어떤 地位는 다른 地位보다 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고, 또한 어떤 地位에는 特別한 才能과 훈련이 必要하며, 어떤 地位는 다른 地位에 비해 機能적으로 보다 더 重要하다고 前提한다. 따라서 어느 社會든 刺戟을 줄 수 있는 報償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報償은 地位에 따라 差等的으로 分配되어야 하기 때문에 差等的 報償과 分配는 社會秩序의 한 部分이 되고 따라서 階層秩序가 樹立된다는 것이다.⁽²¹⁾

물론 機能主義的 立場이 權力關係에서 오는 階層構造의 力動的인 側面과 逆機能을 相對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批判을 받고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作業의 內容에 있어 平等化가 이루어 지지 않는 狀態에서의 平等報償이란 곧 不公平의 問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Wilbert E. Moore는 同一하지 않은 業績에 대해 平等하게 報償을 해준다는 것은 同等한 業務遂行에 不平等한 報償을 해주는 것보다 機能적으로나 倫理的으로나 결코 낫지 않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그는 絶對的인 平等이란 社會主義國家가 가지는 未來에 대한 漠然한 꿈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神의 앞에서는 平等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더 平等하다”라는 말이 添加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²²⁾

中共에 있어서 文革직후의 脫階層化의 實驗은 結局 急進的 平等主義로의 追求가 얻어낸 利益을 능가하는 보다 더 큰 損失만을 남긴 채, 새로운 時代의 章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러던 社會主義體制를 채택한 中共社會가 과연 그동안 어느 程度의 社會的 不平等을 減少시킬 수 있었는가?

우선, 所得에 있어서의 不均衡은 全般的으로 減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아시아·아프리카地域의 開發途上國들이나 또는 다른 社會主義國家에 비해

(21) Kingsley Davis and Wilbert E. Moore, "Some Principles of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0 (April, 1945), pp. 242-249.

(22) Wilbert E. Moore, "But Some Are More Equal than Others," in Edward O. Laumann, Paul M. Siegel, and Robert W. Hodge (eds.), *The Logic of Social Hierarchies* (Chicago: Markham, 1970), pp. 143-148.

서도 보다 더 平等한 所得分配의 樣相을 보이고 있다.⁽²³⁾

職業에 따른 所得의 分布를 보면, 特히 精神勞動者와 肉體勞動者간의 隔差는 상당히 좁혀졌다. 自由經濟體制下에서의 職業의 概念은 社會主義體制下에서는 다소 다른 意味를 갖게 됨으로써, 差等的 報償의 內容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²⁴⁾ 一部學者들은 모든 複合社會가 直面하는 機能的 必要性이 職業的 역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職業의 位階秩序는 根本的으로 모든 複合社會에서 類似하다고 主張하지만,⁽²⁵⁾ 西歐의 職業概念이 中共社會에 바로 適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職種別 月平均所得은 高位專門職從事者의 86元에서 부터 非熟練工의 26元에 까지 이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數値는 各 職種에 있어 平均값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職種內的 隔差는 反映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여기서 注目해야 할 事項은 肉體勞動者인 熟練工의 所得이 下位專門職從事者나 下級事務職등 精神勞動者들보다 결코 적지 않은, 오히려 더 높은 物質的 報償을 받고 있

<표 1> 都市地域 勞動人口의 月平均賃金, 1972-1978

職 種	月 平 均 賃 金
高位專門職從事者	86元
各級政府管理職	75
企業의 管理職	67
熟練工	59
下位專門職從事者	51
下級事務職 및 販賣從事者	47
서비스從事者	42
半熟練工 및 日常勞動者	41
非熟練工 및 막勞動者	26

資料 : Parish-Whyte 인터뷰資料

(23) William Parish의 計算에 의하면, 都市 家口에 있어 所得의 分配는 中共에서 高所得層 10%가 全體所得의 21%를 차지하고 低所得層 40%가 全體所得의 25%를 얻는 反面, 市場經濟中心의 다른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平均的으로 上位 10%가 33%, 下位 40%가 15%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農村에 있어서는 所得隔差의 幅이 다소 적지만 隔差의 類型은 비슷하다. 中共에서 最上位 10%가 全體所得의 23%를 차지하고 最下位 40%가 20%를 얻는 반면, 다른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各各 31%와 17%를 보이고 있다. Parish, *ibid.*, p. 41 參照.

(24) Walter D. Connor, "Equality as An Issue," in *Socialism, Politics, and Equality: Hierarchy and Change in Eastern Europe and the USS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pp. 11-28 參照.

(25) 예를 들어, Donald J. Treiman,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다는 事實이다.

〈표 1〉의 資料는 男女 모두 包含되어 있으므로 熟練工에 男性勞動者 比率이 월등히 높고, 下位專門職에 女性이 相對적으로 많이 從事하고 있다는 점을 勘案한다면 所得差의 類型은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市場經濟體制를 追求하는 다른 社會와 比較해 볼 때에, 肉體勞動者, 特히 熟練勞動者들의 社會的 地位는 보다 나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中共만의 特性은 아니며 다른 社會主義國家들의 一般的인 傾向과도 一致한다. 즉 이들 國家에 있어서 職業의 位階는 ① 화이트칼라 인텔리겐치아(專門職·管理職·行政職從事者) ② 熟練肉體勞動者 ③ 下級 또는 無資格 화이트칼라 ④ 非熟練肉體勞動者의 順序로 이루어지고 있다.⁽²⁶⁾ 따라서 中共을 包含한 社會主義國家에서의 階級構造를 西歐資本主義國家에서와 마찬가지로 精神勞動者, 肉體勞動者의 區分을 基準으로 理解하는 것은 큰 意味를 갖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平等化의 노력에도 不拘하고 都市와 農村에서의 隔差는 中共 社會에 여전히 남아 있음을 否定할 수 없다.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不均衡은 學者들간에 다소 差異가 있기는 하나 적어도 2:1은 될 것이라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²⁷⁾ 隔差는 農村과 都市地域間에 있을 뿐만 아니라 農村地域內에서도 都市地域內에서도 적지 않은 程度로 나타나고 있다. 農村에 있어서 1979年度의 個人當 平均所得이 160元이었는데, 80元미만의 農民이 1割가량 되었으며, 60元미만도 3.7%정도 있었다.⁽²⁸⁾ 저소득의 주된 理由로는 不實한 集團生産, 勞動力 缺如, 多數의 扶養家族 또는 副業失敗 등이 指摘될 수 있을 것이다. 都市地域內에서의 隔差도 마찬가지로 1980年 初葉의 경우 個人當 月所得이 50元을 넘는 家口가 9.3%이며, 25~50元에 이르는 家口가 67.2%인데, 15元미만이 되는 家口도 全體의 2.1%가 되고 있었다.⁽²⁹⁾

다음으로 男女간의 不平等을 考慮해 보아야 할 것이다. 男女平等이 적어도 憲法에 保障되어 있고, 同一한 職種에 從事할 경우, 男女間의 差等的 質

(26) Frank Parkin,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Social Stratification in Capitalist and Communist Societi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1), pp. 141-149.

(27) Whyte, *ibid.*, p. 687.

(28) *Beijing Review*, 19 January 1981; 農村內의 所得不平等은 William L. Parish and Martin K. Whyte, *Village and Family in Contemporary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p. 47-72 參照.

(29) *Beijing Review*, 9 February 1981.

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女性들은 대체로 非熟練의 下位職에 從事하는 傾向이 있고, 年齡에 따라 性別差異는 增加하고 있다. 즉 30才 미만의 경우 男女間의 隔差는 근소하지만 50才이상에 있어서는 男性이 平均적으로 2배이상 벌고 있는 것이다. 1949年 以來로 女性의 社會的인 地位가 높아져 온 것은 事實이며, 女性의 勞動參與率도 急激히 增加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傳統的인 東洋社會의 家父長的 家族制度에서 오는 男性優位の 觀念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中共의 한 女性의 指摘대로 家口內에서의 일이 “社會化”되지 않는 한, 女性의 完全한 解放은 아마 不可能하리라고 보여진다.⁽³⁰⁾

마지막으로 權力的 不平等은 社會主義社會에서의 普遍的 現象이라고 볼 수 있다. 共產黨下部組織의 一般組織內로의 浸透는 組織과 그 成員들의 生活에 크나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결국 政治的 不平等은 經濟的 不平等을 解消시키기 위한 努力의 結果로서 얻어지는 副産物일지도 모를 일이다.⁽³¹⁾ 文革以前에 黨幹部들이 누렸던 物質的 豊饒와 特權意識은 文革期間을 通하여 특히 批判의 對象이 되었고, 그들의 相對的 地位는 格下되었었다. 그러나 一時的인 例外를 除外한다면 대체로 黨 및 政府의 高位幹部들 自身과 그들의 子弟들이 받는 惠澤은 相當하다. 예를 들어 中共의 海外留學生中 絶對多數가 高位幹部들의 子弟이며, 海外旅行을 할 수 있는 사람도 選擇된 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이들中 상당수가 官僚나 高官들의 家族들이라고 傳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官僚階級の 登場과 그들의 特權濫用現象은 黨內外에서 심각하게 舉論되고 있을 程度로 中共社會에 蔓延되어 있다.⁽³²⁾

앞서의 論議는 몇가지 側面만을 浮刻시켜 살펴본 것으로서 中共社會에 對한 斷片的인 說明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社會에 對한 體系화된 一般化를 構成하기에는 최근 이 社會全般에 걸친 變化의 速度가 너무 빠른 듯하다.

(30) 特輯 “Chinese Women Discuss Life and Work,” *Beijing Review*, 9 March 1979, pp. 19-27 參照.

(31) Gerhard Lenski, “Marxist Experiments in Destratification: An Appraisal,” *Social Forces* 57 (December, 1978), pp. 364-383.

(32) 中央日報, 1981年 2月 20日, 2月 26日字 參照.